



54021 군산시 구영7길 129
전화 063.442.1166~7
이메일 gscur@daum.net

재생이



7월호

■ 발행일 2020. 7. 25.

■ 기획·편집 김기은 · 인소영

■ 발행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군산

재생을 위한 소란스러움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송석기 센터장

2018년 3월 6일, 화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렇게 넓은 매장은 아니었지만 뻘뻘하게 모여 앉았습니다. 몇 개 팀으로 나누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생각을 모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은 하루에 그치지 않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임이 제가 알고 있는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옆 동네에, 이웃 마을에 그럴싸하고 대단한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편지축제가 3회째를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탄할 수 없지만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늘어난 횡수만큼 주민들은 몇 곱절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지역은 어디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과 시시비비가 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미덕이고 가능성이기때 주민들의 소란스러움에 갈채를 보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전문박물관 등록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리, 국비·도비 공모사업 신청과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확대, 교육용 전력요금 적용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의 다양성 및 운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어 뜻깊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치유해가는 미래로 이어지는 소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2019년 6월 개관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동국사길 21)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전북-공립12-2020-1호)되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앞으로 전문성 확보, 유물의 안전한 관

여지는 소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지상 3층 건물로 1,2층은 주차장, 3층은 전시관 및 수장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증·기타유물 3,000여 점을 전시·보관하고 있다. 현재 제2회 특별기획전 "수탈의 기억 종교-빛과 그림자(5.2.~7.31.)"가 열리고 있다.

재생 알림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1조)

●위치



●활용

센터 2층 로비에 도시재생사업 안내 및 홍보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신동

주민협의체 정례회의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하기로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백종관 팀원

해신 1구역 주요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

2020년 7월 16일 해신동 주민센터에서는 해신 1구역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신 1구역 주요 주민대표자(해신동 주민자치위원회, 해신상가변영회, 수산물종합센터운영위원회 상인회장, 해신동 통장 등 대표)와 해신동장, 군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참석했다.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기평 센터장으로부터 개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해신동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협의체를 확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으며 주민협의체 정례회의를 가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완해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조율했다. 주민설명회는 8월 5일 오전 10시 해신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보자 신나게 동화처럼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기평 센터장

안녕하세요? 올해 7월 1일부터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일하게 된 '이기평'입니다. 먼저,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진정된 이후에 얼굴을 뵙고 인사 올릴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해산물 특화단지 1층(군산시 내항2길 312)에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이룬 결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은 근대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근대역사문화관광벨트'와 근접하고, 해산물로 특화되어 있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산시 핵심기능의 외곽 이전, 도선장 폐쇄, 군산시 전반적인 경기 하락,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쇠퇴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8년부터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시작하여 3번의 도전 끝에 '19년 10월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7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침묵은 NO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책을 써 내려가는 5년간의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책은 일반 책과 달리 특정 작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쓰는 책입니다. '무엇을 쓰느냐' 보다는 '누구랑 쓰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너나 아닌 우리가 함께 쓰는 글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많은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



고,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이 오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글쓰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해신동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

된 것이어서 매우 긍정적인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책은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책을 쓰는데 남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신나게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동화를 써 보아요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책을 쓰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책을 쓸 작가도, 책을 편집할 전문가도, 책을 인쇄할 돈도, 이제 마음을 열고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모여 시작하면 됩니다. 5년 여정의 긴 글쓰기를 끝냈을 때, 누구도 찾지 않는 버려진 책으로 남기 보다는 이왕 쓰기로 한 책이라면 누구나 찾고 행복해지는 '동화같은 베스트 셀러'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해보시죠. 신나게 동화처럼.

감사합니다

이제는
멋진 풍경을 도선 할
'도선장'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김홍수 팀장

1934년 일제 강점기부터 군산과 장항 사이를 오가던 여객선 선착장은 해방 이후 군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군산에는 도선사업소를, 장항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4년 군산시와 서천군이 공동지분으로 금강도선 공사를 설립해 운영하였고, 2001년에는 월명토건에 매각되었다.

오랜 세월 군산과 장항 사이를 배로 오가며, 시민들의 추억이 많이 담겨있는 도선장이 이용량 감소로 2009년 10월에 운항이 중단 되었다. 향후 5년 동안 해신동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이제는 배가 아닌 멋진 전망으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산북동

입주 희망자 맞춤형 공공주택 건설,
주민협조로 순탄

산북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고석범 팀장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지인 산북동 장전·해이 마을은 저소득자 및 고령자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여서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주택 마련이 필요했다. 따라서 도시재생 주거지원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임대주택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전·해이 마을 공공임대 주택은 맞춤형 설계를 위해 먼저 입주 희망 주민의 신청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만큼의 세대수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손잡이 및 엘리베이터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설계라는 점에 공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자 및 고령자 어르신들의 재정착을 위한 새로운 삶의 거주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전 마을의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었고 해이 마을도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의 협조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산시가 LH와 협력하여 장전·해이 마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단열·마을경관,
두 마리 토끼 잡는다주민 자부담 10% 참여,
산북동 장전·해이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우리동네살리기형)사업 지역인 산북동 장전·해이 마을의 집수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한 주거환경의 정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의 외부(지붕, 외벽, 담장, 창호)를 수리해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벽 도색 및 창호교체의 경우, 10%의 자부담이 있어 7백만 원 중 약 7십만 원의 자부담 비용을 주민이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었다. 주민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진행됐으며,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붕개량 및 벽도색과 창호 교체에 대한 참여 가구의 신청을 받았다.

군산시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단열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의 결과를 기대한다"며 "외벽 및 담장 수리로 마을 경관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사업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북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장미동

도시재생대학 수강생들은
열심히 공부 중!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사무국장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장미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이 지난 5월 18일 재밌는 거리 만들기 과정 개강식을 기점으로 8차 과정, 이어서 경관협정 8차 과정을 끝마쳤다. 장미동의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참석률도 훌륭한데, 전체 수강신청 22명 중 평균 15명 이상이 꾸준히 참석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들불야학'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거리 만들기 과정의 결과물로 장미동 소규모 도시재생지역 가로환경정비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오시요(오늘 시내에서 만나요) 거리 주민공동체 이름으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오시요 거리는 구시청 광장을 건너 키친라피아노부터 비키, 비엔샵부터 아이디어까지의 대략 250미터(m)의 거리를 지칭합니다. 아직, 생소한 거리 이름이긴 하지만 오시요 거리 주민공동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거리 살리기로 조만간 군산에서 가장 핫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대학 수강과정 이외에도 수강생들 간의 야식을 빙자한 단합대회, 토크가 진행되는 아이디어 회의, 주민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애정표현들이 너무 자랑스롭습니다!

“공동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

장미동 도시재생대학 '경관협정'과정 종강식



7월14일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장미동 도시재생대학 '경관협정'과정 오만근 박사의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종강식을 가졌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미뤄졌던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건강이 안 좋은 수강자에게 불참을 권유하고 현장에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문 활짝 열어두기 등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마지막 강연에서 오만근 박사는 주민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라 등 장미동(오시요거리) 주민들이 앞으로 성취해나가기 바라는 경관협정과정 안을 제안했다.

또한 '재밌는 거리'과정과 '경관협정'과정을 모두 수료한 지곡동에 거주하는 황평 씨는 "답이 없다 하는 것은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이라며 "장미동(오시요거리) 도시재생의 답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오시요거리 경관협정과정 제안-오만근 박사>

1. 주민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라.
2. 정기적·장기적·기본적 공동활동(마을청소부터)을 지속적으로 하라.
3. 경관협정운영회를 구성하라.
4. 경관협정을 체결하라.
5. 인접해 있는 우체통거리와의 경관협정을 체결해 큰 그림을 그려라.
6.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라.
7. 장미동(오시요거리) 상업경관 형성 가이드라인(건축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오픈 공간)을 작성하라.
8. 경관사업을 전개하라
9. 경관협정운영회의 지속적 운영과 지속적으로 활동사항을 기록하라.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

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심시가지형)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문병일 팀장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중심시가지형)사업은 군산시 중앙동 일원(패보선창부터 신영시장까지)에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 12월 선정,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56.37억 원, 마중물 지원사업 수협창고 리모델링 등 세부사업 27건(262억 원), 공기업 사업으로 LH행복주택 건설사업(160억 원), 부처간 사업 9건(934.37억 원)이 진행 예정이다.



사업 소개 순서

- 1화 수협창고 리모델링
- 2화 도시숲
- 3화 청년(창업)센터 조성사업
- 4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안심보행길 조성
- 5화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사업

1화 / 수협창고 리모델링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중심시가지형)계획 마중물 사업 중 금암동 1-47번지 (구)수협창고 리모델링은 침체된 제보선장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 시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동군산 수협창고 ▶ 군산 재보스토리1899

동군산 수협창고는 리모델링을 하며 공모를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9년 11월15일부터 12월2일까지 18일간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명칭 선정은 1차 내부심사를 통해 2건의 우수, 8건의 가작 작품을 선정하였고, 2차 심사위원회 평가와 토론을 통해 최종선정 되었다.

군산째보스토리1899는 군산 개항의 해인 1899년부터 이곳 짚보선창의 이야기를 담고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산 **짜보스**토리 1899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倍

1.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 6/15 입주 (영화동 군산시도시 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전)
2. 부처 협업(위생행정과, 농촌지원과) 10월 공사완료 예정
수제맥주 제조 시설 및 시음 판매장(공모를 통해 4개 수제맥주 입주예정)

2층 - 3층

“콘텐츠팩토리”부처 협업(문화예술과)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총 사무실에 6개의 스타트업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각종 강연과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수협창고는 어판장과 사무실, 선구점, 어구창고로 사용하였으나 수변가 일대 침체와 토사로 인한 배를 접안 할 수 없어져 수협창고의 기능 상실로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었으나 군산시의 노력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지역활성화의 앵커 역할을 기대해 본다.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마을기업육성 교육

6. 25. ~ 8. 20. 마을기업을 위해 함께 고민하다

6월 25일 로컬 라이즈 군산 카페에서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열렸다. 마을기업육성 주민역량 강화교육은 '주민이 만드는 마을,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주민이 중심



한 도시재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과 아이디어 도출 워크숍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언더독스 이슬기 디렉터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과 지

이 되어 변화하는 마을 만들기과 중앙동 지역 내 마을기업육성을 목표로 한다.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마을기업육성 주민역량 강화교육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10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다양한 지역의 사례강연을 통해 공동체를 위

역주민이 군산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마을기업을 주제로 공부하고 싶어 참여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마을주민이 참여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참여했다, 흥미로운 지역사례들이 기대된다, 많이 배워가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중영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함께 알아가요!

주거환경정비사업

소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유완 팀원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좀 알쏭달쏭해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사업이 해당될까요?

신영시장 상인회 제2회 초복 맞이 복드림 행사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문병일 팀장

신영시장상인회에서는 이번 초복(7월 16일 (목))을 맞이하여 신영시장 전체 상인들을 위해 직접 120마리의 닭을 구입하고 약재를 준비하여 삼계탕을 새벽부터 끓이기 시작하여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울수 없는 상인들에게 직접 복드림 삼계탕을 나누어 드렸다.

2019년부터 시작된 초복 맞이 복드림 행사는

삼복더위에 고생하는 상인들을 위해 상인회 운영진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로 2회를 맞이하고 있다.

신영시장상인회에서는 상인들을 위해 어버이 날에는 도시락 나눔행사와 한여름 초복에는 초복 맞이 복드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상인들을 위해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어구상사(중앙동) '전북천년명가' 선정

전라북도 30년 이상 한길 경영 우수 소상공인 10곳 선정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변하연 팀원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홍보·마케팅·자금지원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 시작된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 10곳을 '2020년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산시에서 한 곳 선정된 한일어구상사(대표 이태웅)는 50년 동안 각종 어구품 개발과 생태조사 및 실습교재를 위한 어구품도 제작·납품하며 서해안 어민의 어획량 증가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선정 스토리가 있다.

'2020년 전북천년명가'에 선정된 한일어구상사 조옥만 대표는 "50년 동안 어구를 만들면서 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다. 백년을 넘어 천년을 이을 천년명가로 발전하고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 까다로운 절차에 힘들기도 했지만, 선정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강의 듣기

군산시 마을기업육성 주민역량강화사업 강의

내용정리 로컬라이즈 군산, 언더독스 이슬기 디렉터

로컬의 재발견 : 코로나 시대의 도시와 산업

6. 25.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

군산시 마을기업육성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첫 번째 강연은 '골목길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모종린 교수가 진행했다. <로컬의 재발견 : 코로나 시대의 도시와 산업>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위기에서 로컬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변화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모종린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생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일상의 재발견이다. 집에 주로 머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이는 근거리를 중심으로, 동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로컬 기반의 생활권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일, 주거, 놀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여행, 로컬푸드, DIY, 환경산업 등 자생적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으로 돌아오는 인재와 산업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교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의 골목상권이며, 이러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창업가들이 많아져야 하며, 이것은 비단 젊은 층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님을 이야기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지역의 자원을 몸소 체화하고 있는 누구나, 시대의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을스테이 - 이론과 실제

㈜파즐랩 마을스테이 제민천 권오상 대표

7. 2.

첫 번째 강연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서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강연에서는 실제로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례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 봉황동에서 마을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권오상 대표가 <마을스테이 -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공주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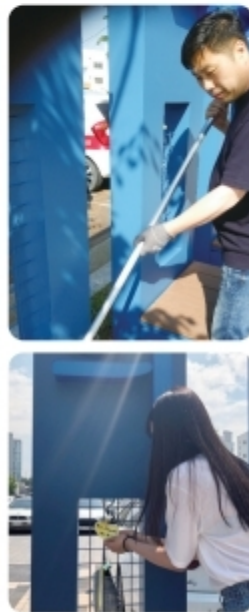
공주 봉황동은 주변에 슈퍼마켓도 없는 주택가로,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1960년대의 풍경을 지니고 있는 동네이다. 이곳에서 권오상 대표는 게스트하우스 봉황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여 마을호텔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존의 호텔이 하나의 건물에 다양한 호텔 기능(숙박, 식당, 체험 등)이 모두 들어간 수직적 형태의 호텔이었다면, 마을호텔은 호텔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수평적으로 펼쳐놓은 마을 자체가 호텔의 기능을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마을호텔인 "마을스테이 제민천"은 봉황재에서 객실을 제공하고, 식당, 갤러리, 카페 등은 마을의 자원을 이용한다.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골목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공간과 지역에 대해 친숙해지는 시간을 제공하며, 동네와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간을 하나로 묶어내는 마을호텔 모델은 중소도시, 마을단위 상권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체가 같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다.



오시요거리에 소소한 추억만들기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예슬 · 고지은 인턴



군산청소년문화광장(구경찰서)에 세워진 '물빛희망 군산' 조형물에 지역 상인들이 애정을 쏟고 있다. 쓸고 닦고 청소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조형물 철망에 메시지를 담은 리본을 달기 시작했다. 오시요거리 주민공동체(대표 김용민)는 "오시요거리(구 군산초등학교~중앙로 교차로)의 활성화를 희망하며 메시지를 남기자는 상인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며 "오시요거리에 오셔서 쇼핑도 하고 남기고 싶은 글귀를 달아 소소한 추억을 남기시라"고 전했다. 오시요거리에 있는 옷가게 '간지'에 문의하면 인쇄부터 코팅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니 누구나 쉽게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오시요거리는 '오늘 시내에서 만나요'의 줄임말로 옛 시내의 명성을 재생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희망을 담은 별칭이다.

'군산 도시재생 소식, 전북 도시재생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소영 팀원

종합포털 전라북도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군산 도시재생 소식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투어나 소식지 '재생이' 등 지면으로만 만나볼 수 있던 군산의 도시재생 소식을 전국에서 누구나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창에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현황' 란으로 들어가면 군산의 도시재생 소식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정보를 올려놓았으며 추후 아심차게 도약하여 활동하는 여러 현장의 내용들이 더 많이 게시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또한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14개 시군 도시재생소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와 가까워지기 바란다.

다가오는 휴가철,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여행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내 여행하기 좋은 시기이다. 올 휴가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군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해 봐도 좋을 듯 싶다.

웹사이트의 공식 오픈은 7월 말~8월 초 예정이다.

사이트 참조 <https://www.jburc.or.kr/>

제3회(2020) 손편지 축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손편지축제가 8. 7.(금)~8. 8.(토) 열립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일 경우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방향성 기대

군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식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이 6월24일 월명동 도시재생 거점지인 구 군산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중정길8-1)에서 50여 명의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군산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

속가능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따라서 군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이날 강임준 시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위해 중간조직의 역할을 다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시의 역할을 제안하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규옥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교육과 포럼, 모델 발굴 및 육성, 홍보 및 판로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군산시는 월명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개복동(중정길 8-1)에 40년 이상 방치돼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시재생 거점지 군산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센터를 조성했다.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해왔다.

거점지는 2020년 군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5월1일 문을 열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부터 컨설팅,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갈 예정이어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활동에 큰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군산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군산시는 중앙동·산북동·해신동·소룡동 4곳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센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월명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각 사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소룡동의 경우
인근 지역인 해신동의 현장지원센터에 임시 센터를 두고 있다. <편집자주>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개

중앙동 폐보선참삼거리 일대는 구)폐보선창, 군산화물선, 폐철도부지, 신영시장, 수협창고, 한화부지 등 대규모 유휴공간이 방치되어 있던 곳이다. 2018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기존 사업 재생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기반 재구축과 워터프론트 및 유흥지 재생,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능·상권의 회복을 통한 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치 군산시 해마로 146-24 1층(T.070-4647-0228~9)



산북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개

산북동 1629번지 일대(장전·해마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공통 화석이 있는 화석산지이다. 2018년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열악한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및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위치 군산시 장전길 27 2층 (T.063-466-3247)



해신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개

해신동1011-21번지 일대는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해마굴, 동백대교 등이 입지한 해산물 도소매시장 특화지역이다.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앞으로 혁신성장센터, 해산물 가공센터, 문화파크 등을 신설하여 해산물시장과 근대문화가 어우러진 군산의 신 관광명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룡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임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개

소룡동1393-162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경로당, 소룡초등학교, 월명중학교 등이 있으며 산업단지와 근접한 주거밀집지역이다. 2019년 전북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현장이며 추후 노후주택정비 등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위치 군산시 내항 2길 312 1층 (T.010-4647-0238~9)



함께 알아가요!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출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3.12 제정, 14.1 시행, 19.1 개정)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주민,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 및 기업, 정부 등 각 주체간의 연계협력소통이 필수적이다.

(1) 주민의 역할

주민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정부·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각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한다. 또한,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한다.

(3) 국가의 역할

관계 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형별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주민·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술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한 재원으로 예산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4) 민간투자자 및 기업의 역할

다양한 투자개발기법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하고, 저평가된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에 상업업무·첨단산업 등 고용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복지·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한다.

(5)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하고,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군산 도시재생 소식

2020. 6. 22. ~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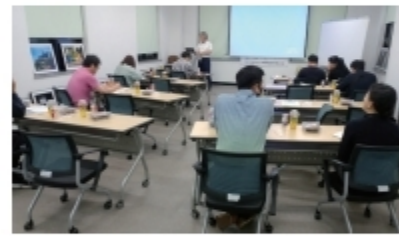
2020. 6. 22. 월요일

중양동 마을기업 설립준비 주민모임
중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020. 6. 25. 목요일

민관협력 도시재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주선 박사 강연



2020. 6. 25. ~ 7. 14. 목~화

장미동 도시재생대학 '경관협정'과정
센터 세미나실



2020. 6. 27. 토요일

장미동 도시재생대학 선진지견학
우체통거리



2020. 6. 30. 화요일

신영시장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명회
신영시장 상인회 사무실



2020. 7. 2. 목요일

패보선창 마을기업 시제품 제작회의
중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0. 7. 6. 월요일

중양동 일대 벤치 및 화분 페인트 도색
선창발전위원회



2020. 7. 6. ~ 8. 10. 월~월

홍남동 주민공모사업
한지모던협동조합



2020. 7. 8. 수요일

장전해이 집수리사업 관련 주민회의
장전마을회관



2020. 7. 9. 목요일

삼학동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주
민역량강화교육(심화)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2020. 7. 9. 목요일

중양동 콘텐츠발굴을 위한 강연 참석
인문학창고 정담



2020. 7. 10. 금요일

오시요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동남빌딩



2020. 7. 10. 금요일

중양동 마을기업 준비를 위한 현장
견학
농업기술센터



2020. 7. 10. 금요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모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시민예술촌&편발리지
협동조합(주)서광&도시재생지원센터



2020. 7. 11. 토요일

손편지축제 진행자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교육
군산 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



2020. 7. 15. 수요일

홍남동 조형물 디자인 회의
미원광장

군산시 도시재생 주민기자 모집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골목스토리 발굴, 마을행사, 마을주민의 감동 스토리, 도시재생 주민참여 현황 등을 취재할 주민기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으며 생활권이 도시재생사업지역 또는 도시재생 사업예정지(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기준) 주민
- 대상지역** 월명동, 중양동, 해신동, 소룡동, 산북동, 홍남동, 삼학동 등
- 모집일정**
 - 모집기간: 2020. 6. 8(월) ~ 6. 25(목) ※지원자가 없는 경우 수시모집
 - 합격자 발표: 유선상 개별통보
 - 활동기간: 2020. 7. 1. ~ 2020. 12. (6개월)
- 지원방법** 센터방문 접수 (9:00~18:00)
 - 전북 군산시 구영7길 12(영화동)
- 활동내용**
 - 주민기자 회의 참석
 - 도시재생 관련 기사작성
- 활동혜택**
 - 도시재생 기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재생이'에 우수 기사 게재
 - ※도시재생 주민기자 활동은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원고료·활동비 등 어떠한 비용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문의** 063) 442-1167, 063) 454-4478

군산 도시재생 소식지 '재생이' 7월호를 만든 사람

- 발행인** 송석기
- 취재 및 원고**
 -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준호 김기은 인소영
 - 군산시 중양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문병일 변하연
 - 군산시 해신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기평 김홍수 백종관
 - 군산시 소룡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유완
 - 군산시 산북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고석범
 - 청년멘토 정예슬·고지은
- 협조** 군산시 도시재생과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로컬라이즈 군산, 언더독스
- 편집 디자인** 한빛프로세스